

#광역 경제권 #돌봄 국가책임제... 與 주자들, 호남 쟁탈전

박용진 “상생 발전 그랜드 비전 실현” 이낙연 “일·가정 양립” 지원책 이재명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전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이 13일 호남 지역 정책 공약을 냈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호남(광주·전남, 전북) 지역 경선에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박용진 의원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NEW DJ 노선으로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다. 광주·전남에 바이미시스(바이오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상생 발전의 그랜드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주혁신도시 내 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전남 장성·광주 북구 내 AI(인공지능) 특화 산업단지 조성 ▲전남 화순 내 바이오백신 산업특구 조성 ▲여수·순천·광양의 5G 스마트산업단지 ▲전남 고흥 내 6G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 사업인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및 흑산공항 조기 추진 ▲광주상무지구·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 및 광주 1호선 화순 연장 추진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화 사업, 서부 경전선 고속화 및 호남고속선 직결 등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전북 전주에

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을 인구 500만 이상 호남권 메가시티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강소권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 ▲전북 혁신도시 확장 및 제3금융도시 지정 ▲전북권 광역교통망 완성 ▲새만금·군산·익산 특화 관광산업 육성 ▲새만금·포항·산연결 KTX 동서선 건설 ▲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넥스트 대한민국’ 정책 일환으로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 등 7대 공약을 냈다.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 위기’로 규정하는 이 전 대표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남녀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육아휴직 격차 완화 ▲복귀 후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 지역순회 경선에서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3일 온라인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신안·여수 등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조기 실현 및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개발 지원 ▲재생

에너지 주민소득형 모델 ‘햇빛연금, 바람연금’ 제도 도입 ▲문화·해양·생태 관광 중심지 및 스마트 농수축산업·식품산업 핵심거점 조성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수가 민주당 전체의 30% 수준인 약 2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승기를 잡을 경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 지역’인 만큼 주요 주자들이 특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 출연한 가운데 “호남의 민심이 저희 당의 후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며 “그런 의미에서 2차 슈퍼워크, 9월 25일부터 10월 3일에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정세균, 대선 후보 사퇴 “백의종군하겠다”

낮은 지지율 기록... 중도 사퇴 “국민과 당에서 받은 은혜 갚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경선 과정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중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중도 사퇴 소회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는 말도 전했다.

정 전 총리가 ‘중도 사퇴’한 데 대해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예비후보는 지난 11~12일 대구·경북 순회 경선을 포함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등으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12일) 발표된 민주당 국민·일반 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정 전 총리는 4.27%(2만3731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날 발표된 강원 지역 경선에서도 6.39%(583표)를 얻은 바 있다.

/최영훈 기자

조성은 인터뷰 논란... “박원장 수사하라”

조성은 “원장님 원한 날짜 아냐” 이준석 “박 원장, 모종의 코칭 의혹”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 조성은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왼쪽). /뉴시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제기’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말한 방송 인터뷰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씨는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고 맞섰고 윤석열 캠프 측은 “박 원장에 대한 전면적 수사과 해임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SBS 8뉴스〉는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씨와 가진 5분 가량의 내용의 사전녹화 인터뷰 편집본을 방송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편집본이 아닌 30분이 넘는 전체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다. 조씨는 “(뉴스버스 보도일인)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촉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캠프는 현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장이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체보자를 만났다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 12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는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 공격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체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의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 상황실장과 김용남·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권 편향 인사를 배제하는 선거중립내각 요구 ▲김

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편향적 인사 사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해임을 요구했다.

조씨는 해당 사건은 지난 작년 4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일어난 범죄 사실 일 뿐이라며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씨는 1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등떠민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강행을 했고 저는 이것을 결국 끝까지 끌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방어 방법”이었다며 “제가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람을 좋아하시고 정이 많으신, 또한 중차대한 국정 직책을 맡으신 분을 헐뜯아주게 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 발언은 “말실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뉴스버스의 발행인인)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정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을 정했으면 12월이 됐을 거고, 보도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 제출 기회를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린다... 컷오프 여론조사 실시

1차 예비경선 결과 내일 발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성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이 13~14일 양일간 시민·당원 여론조사로 8명의 대선 주자를 가려낸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 대선 주자들은 보수 지지도가 높은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를 방문해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일반 시민 2000명과 책임 당원 2000명을 조사한다. 각 여론조사 기관이 시민 1000명, 책임 당원 1000명의 조사를 맡는다. 일반 시민 조사에서 80% 당원 조사에서 20%를 합산해 상위 8명을 추려낸다.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13일 보수주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와 PK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경북 유교 문화회관, 안동대학교 등을 찾았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TK지역을 찾았다. 그는 13일 일정 마무리로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을 찾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 UN기념공원 등을 방문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이름으로 경남 진주로 향했다. 그는 진주에서 경남도당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진주

중앙시장까지 찾았다. 박진 의원은 전북 전주에 방문했다.

한편 1차 컷오프 대상이 되는 예비후보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전날(12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홍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레이스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퇴 선언문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강단 있게 안보를 바로 세울 분은 홍준표 후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